

# 배우 다니엘 헤니 “한국 현장의 따뜻함이 너무 좋아요”

영화 ‘공조2’서 FBI 요원 책역 맡아  
10년만에 복귀 한결 경쾌해진 연기

드라마로는 2010년에 나온 ‘도망자 Plan B’가 사실상 마지막 작품이었다. 영화 쪽에서도 2013년에 나온 ‘스파이’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배우 다니엘 헤니(43)는 10년 넘게 한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다. 광고 모델로 꾸준한 모습을 보였고 예능 프로그램에 간간히 출연했지만, 사실상 미국 활동에 전념했다. 미국 인기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에 출연한 건 그렇게 얻은 성과였다.

더이상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는 출연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헤니가 10년만에 돌아왔다. 영화 ‘공조2:인터내셔널’(‘공조2’)의 FBI 요원 ‘잭’으로 복귀했다. 그는 그간 진중하고 절제된 이미지에서 한 걸음 벗어나 한결 경쾌해진 연기를 보여주며 관객을 휘어잡는다. 그의 한국 활동을 기대했던 팬에게 ‘공조2’는 선물같은 작품일 것이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만난 헤니는 “앞으로 한국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공조2’는 2017년 개봉해 780만 관객이 본 ‘공조’의 후속작이다. 글로벌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한국 경찰 ‘강진태’(유해진)와 북한 경찰 ‘림철령’(현빈)이 힘을 합치고, 여기에 미국 FBI에서 잭이 가세하면서 이른바 ‘삼각 공조’가 이뤄진다. 헤니가 연기한

잭은 림철령과 강하게 맞부딪히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위해 그와 힘을 합치는 인물이다. 헤니는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강렬하게 그리고 헤니 특유의 매너로 잭을 연기했다. “한국어로 일상 대화를 나누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연기는 아예 다른 영역이죠. 특히 한국어로 감정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작품이 저에게 도전이었어요.”

‘공조2’가 개봉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는 건 헤니와 현빈의 재회 덕분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17년 전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호흡을 맞췄다. 두 사람은 이후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왔다고 한다. 헤니는 현빈과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종종 연락하며 지냈고, 골프를 함께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조2’ 촬영하면서 맥주 한 잔 했다.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이야기하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빈을 “정말 좋은 리더”라며 “그와 함께하는 게 매우 좋다. 그가 출연하는 작품이라면 어떤 것이든 나도 출연하고 싶다”고 추어올렸다.

그는 긴 세월을 돌아 마주한 현빈과의 연기에 매우 만족했던 것처럼 한국 영화 현장에 오를만하게 함께하는 게 행복했다고 했다. 헤니는 “왜인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힘들지

만, 한국 현장이 이상하게 좋다”고 말했다. “미국 현장이 정말 비즈니스스러운 느낌을 받아요. 상대적으로 차가워요. 그런데 한국은 가족 같은 느낌이 있죠. 어떤 게 더 낫다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죠. 전 한국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끈끈하고 따뜻하죠.”

헤니는 앞으로 한국 활동을 늘려가고 싶다고 했다. 현재 그에게 약 1년 반 가량 준비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작품을 한국에서 영화화하고 싶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좋은 작품이 있으면 언제든지 출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만약에 제 시나리오가 한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지면 제가 연기도 하고 싶어요. 저만의 시각을 영화에 담고 싶거든요. 제게 있는 언어적 제약을 제가 가장 잘 아니까, 저한테는 제가 쓴 시나리오가 최적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요.”

그는 좋은 배우,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하면서 살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지만, 자신은 생각이 다르다고 했다. 늘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하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지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였다. “물론 저도 예민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저와 함께 일하는 분들이 저와 보낸 시간이 좋은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들이고 눈을 보면서 얘기하죠. 그걸 절경구 형님과 후작맨 형님한테 배웠어요. 이분들의 좋은 면면을 제 것으로 만들어서 좋은 리더가 될 거예요.”



## 김선아 “이전 맡았던 캐릭터 중 가장 화려한 인물”... ‘범의 제국’

JTBC 오는 24일 오후 10시 30분 첫 방송

배우 김선아가 약 3년 만에 범법 가족의 적장자 한혜를 역으로 안방극장을 찾는다.

JTBC 새 주말드라마 ‘디 엠파이어: 범의 제국’(극본 오규규, 연출 유현기) 측은 김선아의 인터뷰를 14일 공개했다.

김선아는 “범으로 단단하게 쌓아올려져 누구 하나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두가 궁금하지 않겠나”라며 범법 가족의 철옹성 안에 대한 흥미를 드러냈다.

이어 “이들이 가진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끔 만드는 전개들이 저에게도 스틸 넘치게 다가왔다.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 인물들 간의 관계성도 흥미로웠고 뒷이야기가 궁금할 정도로 대본을 재미있게 읽었다”고 말해 기대

감을 높였다.

특히 한혜를 캐릭터에 대해 “이전 작품 속 맡았던 캐릭터 중 가장 화려한 인물인 것 같다”고 표현했다. 더불어 그는 “한혜를 둘러싼 배경들은 표면적으로 본다면 누가 봐도 완벽하고 멋진 삶이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욕망과 위선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늘상 이렇다고 받아들이는 한혜를의 모습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아는 “한혜를이 엄마 함광전(이미숙 분), 남편 나근우(안재욱 분)를 비롯한 가족들과 외부 사람들을 대할 때 온도 차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된다. 그녀의 모습 속에서 이들의 관계성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선아는 “각 인물들의 이면에 감춰



진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들과 그 안에 담긴 희로애락들, 그리고 인물들간의 얽히고설킨 감정의 소용돌이를 따라가주시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디 엠파이어: 범의 제국”은 범으로 쌓은 철옹성 안에서 지켜왔던 욕망과 위선의 삶, 그들의 비밀에 대한 폭로이자 가진 자들의 추락 스펀들을 그린다. 24일 오후 10시 30분 첫 방송.

##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26주년 귀환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가 26주년을 기념해 올 연말을 물들인다.

오는 11월5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CI토월극장에서 공연한다.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기, ‘브로드웨이’의 중심인 42번가가 배경이다. 코러스걸에서 일약 브로드웨이 스타로 발돋움하는 ‘페기 소이’를 중심으로 극이 전개된다.

1980년 뉴욕 워터가든 극장 초연 이후 브로드웨이에서 5000회 이상 장기공연을 이어간 스테디셀러 뮤지컬이다. 1996년 한국 최초 정식 라이선스 뮤지컬로 시작해 화려한 무대와

경쾌한 탭댄스로 뮤지컬 대중화에 앞장서며 흥행을 이어왔다. 브로드웨이 최고의 연출가로 최고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카리스마 있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리더 ‘줄리안 마쉬’ 역은 2016년 이 작품으로 뮤지컬에 데뷔한 송일국과 다섯 시즌 연속 캐스팅되며 캐릭터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이종혁이 출연한다.

한때는 최고의 뮤지컬 스타였지만 지금은 그 명성을 잃어버린 프리마돈나 ‘도로서 브룩’ 역에는 정영주와 배혜선이 나선다.

또 신영숙이 이번 시즌 새로운 캐스트로 합류한다.

## 김혜수, 가장 걸음 빠른 조선 중전마마 ‘슈룹’

내달 15일 오후 9시 10분 첫 방송

tvN 새 주말드라마 ‘슈룹’(극본 박바라, 연출 김형식)측은 김혜수의 메인 포스터를 14일 공개했다.

공개된 메인 포스터에는 중전 화령의 이중 매력이 돋보인다.

눈 땔 수 없게 흐르는 우아한 기품과 단단한 눈빛에서 발산되는 힘은 그야말로 국모 화령의 위엄을 여실히 느끼게 한다.

반면 한껏 치켜든 치맛자락은 한시라도 빨리 당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해 그 사이 바빠 움직이는 발걸음과 흘날리는 흠뻑이는 조용할 날 없는 일상을 가늠케 한다.

‘슈룹’은 자식들을 위해 기품 따윈 버리고 사고동치 왕자들을 위해 치열한 왕실 교육 전쟁에 뛰어드는 중전의 파란만장 궁중 분투기.

내달 15일 오후 9시 10분 첫 방송.



## 유인나 “체인 걸고 데이트 설레...나도 해보고 싶어”



텔런트 유인나가 쿠팡플레이 연애 예능물 ‘체인리액션’ MC로 나선다.

유인나는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체인리액션 제작발표회에서 “나도 사이판을 못 가봤는데, 화면으로 보니 시시각각 아

쿠팡플레이 연애 예능물 ‘체인리액션’ MC

름답더라”면서 “보기만해도 활활한 곳에서 처음보는 남자에게 ‘뽀를 타라’ ‘사랑하라’고 하지 않느냐. 거기다 체인을 걸고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해변도 거닐고 자연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많이 설렜다. 기회가 된다면 나도 해보고 싶다. 과몰입이 저절로 됐다”고 털어놨다.

특히 유인나는 “지코씨가 얼굴도 빨개지고 입도 틀어 막더라”면서 “나 스스로 감정보다 인기가 싶었는데, 지코씨는 더했다”고 귀띔했다. 래퍼 지코는 “사실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를 끊임없이 본다”며 “체인리

액션도 촬영이라기보다 집에서 연애 리얼리티를 시청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과몰입하게 됐다. 나를 투영하기보다 그 장면에 빠져서 났을 뿐이다. 자연스럽게 반응이 튀어 나왔다”고 설명했다.

체인리액션은 사이판에 모인 남녀 8명이 체인으로 묶여 240시간을 같이 보내는 모습을 담는다. 게임을 통해 일정 시간 서로를 벗어날 수 없는 관계를 맺으며 설렘을 줄 예정이다. 유인나와 지코를 비롯해 개그맨 이진호, 그룹 ‘브레이브걸스’ 유정이 MC를 맡는다.

16일 오후 8시 첫 공개.

## 위아이, 7개월 만 컴백...“내달 발매 목표”

그룹 위아이(WE1)가 내달 컴백을 확정했다. 14일 위엔터테인먼트는 위아이가 10월 컴백을 목표로 새 앨범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발매한 4번째 미니앨범 ‘러브 파트원 : 퍼스트 러브(Love Pt.1 : First Love)’ 이후 7개월만의 신보다.

위아이는 2020년 데뷔한 뒤, 지난 3월 ‘러브

파트원 : 퍼스트 러브’를 발매하며 초동 판매량 11만8000장을 기록했다.

글로벌 입지도 꾸준히 다져나가고 있다. 지난 8월 일본 데뷔 앨범 ‘유스(Youth)’를 발표해 현지 팬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현재 첫 월드 투어 ‘퍼스트 러브: 위아이 월드 투어(FIRST LOVE : WE1 WORLD TOUR)’



를 들고 있다.